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최선”

김관영 도지사, “전북 지정 중요성 적극 홍보하자”
국책연구 혁신기관 연계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글로벌 혁신 특구 대응·구제역 방역 철저 당부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지정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IT발표심사 이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치를 결심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지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5월말은 국가예산 수립 관련 부처별 예산안이 성안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음주는 “각 실국장 이 해당 각 부처를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각 부처에 가서 살겠다는 각오로 부처별 실행계획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매일 아침 국가예산활동 결과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점검회의를 통해 지체되는 국가 예산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실행 되도록 하고, 지역·연고·동행 국회의원 등도 협업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내 국책연구 혁신기관이 50여개나 되고 특히 싹이 있는 기관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며, 관련 실국이 혁신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8일 중기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언급하며 전북도도 기존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탄소융복합산업 특구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발전하겠다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예의 주시하며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관영 지사는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대회가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4년 만에 구제역이 충북에서 발생했고 현재까지는 전북이 잘 대응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기며, 더 철저히 구제역 방역조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총선 선거구획정 전북지역 의견 청취 구체적인 획정 방안 선거구 수 유지 필요성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의견 제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지난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유민봉 신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사진 왼쪽)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 실현 시도협 차원 역할 필요”

김관영 도지사, 유민봉 시도지사협 사무총장과 균형발전 논의
“전북 특자도 지방분권 시범단계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제11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부임 인사를 위해 전북도청을 방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중앙관원을 이양하는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과 강원에서 추진하는 특

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시범단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특례 반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함께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지방의 현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 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 간 사전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통령령과 교 교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시도지사들께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논의하고 지역의 현안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정책의 화가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도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시도 직원들이 일일 방문 프로그램 등을 세계잼버리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도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민봉 사무총장은 성공관대학교 교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우리 술 제조용 쌀 소비 촉진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추가

윤준병 의원, 법안 대표발의... “쌀 소비 진작 방안 발굴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훈 기자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김성환·신정훈·위성근·오영환·김철민·양정숙·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음=김대환기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만에 10.5kg(15.6%)나 감소했는데,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공급

도의회 예결특위, 잼버리 부지 현장의정활동

24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의... “특자도 출범 지원 등 주안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지난 19일 오전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4일까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김재훈 기자



하는 만큼, 다중인파 관리와 자연재해 대비 등 안전관리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잼버리 현장점검 후에는 곧바로 행정부처의 정책질의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추경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돌입에 앞서 진 위원장은 추경편성의 목적 적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시전합차 이행 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삼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1월 시행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 지원 및 학교현장의 교수학습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